

외교부: 무기 제조 재료 제공 비난은 책임 전가

외교부 대변인 왕문빈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로씨야에 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를 제공했다는 미국의 비난은 책임 전가로서 용납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왕문빈은 군수품 수출에서 중국은 물론 신중하고 책임적인 태도를 유지했으며 민용 무기 수출을 포함하여 군용과 민용 양용 물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문빈은 미국은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전례없는 군사적 지원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로씨야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왕래를 리유없이 비난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이중 자대이며 아주 허위적이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왕문빈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이 수동적인 입장에 놓인 것은 중국의 탓이 아니라며 불은 불에 기름을 붓고 정치적 해결만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올바른 길임을 사실이 증명한다고 말했다.

왕문빈은 중국에 책임을 전가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동적인 입장이 바뀔 수 없으며 사태가 더욱 복잡해지게 할 뿐더러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 밖에 초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왕문빈은 중국은 물론 평화와 협상을 권장했다고 강조했다.

/ 국제방송

뿌찐: 로-중 청년 교류 강화 기대



로씨야 뿌찐 대통령이 17일 오후 할빈공업대학에서 연설하고 있다. / 신화넷

로씨야 뿌찐 대통령은 17일 할빈공업대학(이하 '할빈공대')에서 연설하고 교육·과학기술 협력, 문화 교류·상호 학습, 청년의 성장·발전 등을 놓고 교수,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중국-로씨야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로 교육 협력은 항상 양국 협력의 중요한 분야였다. 할빈공대는 썬끄뜨-뻬찌르부르그 국립대학 등 로씨야의 여러 유명 대학과 과학기술교육 협력을 발전시켜왔다.

뿌찐 대통령은 "로-중 양국의 대학교육기관간 협력은 양국 청년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주고 서로에 대한 양국 인민의 이해를 증

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로씨야측은 중국측과 계속해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청년들에게 교류와 학습의 플랫폼을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뿌찐은 로씨야 소학교·초중·고중 학생 및 대학생 약 9만명이 중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중국에도 로씨야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중 양국 협력의 분야가 갈수록 확대되고 수준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양국의 언어를 리해하고 또 전공 분야에 정통한 인재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신화넷



제8회 중-로 박람회의 첫 공중개방일에 연인수로 7만 5,000명이 회의장에 들어가 '로씨야의 맛'을 체험하고 '로씨야의 풍토'를 느꼈다. 사진은 5월 18일, 한 전시상이 로씨야 킹크랩(帝王蟹)을 전시하고 있는 장면이다. / 신화넷

로씨야: 평등한 조건에서 서방과 대화

로씨야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18일 모스크바에서 로씨야는 평등한 조건을 전제로 서방 나라들과 안보 및 전략적 안정 문제에 대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는 이날 로씨야 싱크탱크 외교·국방정책 제32차 회의에 참석해 "로씨야는 안보와 전략적 안정 문제를 포함한 서방과의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그러나 대화는 힘과 배타성에 기반할 것이 아니라 평등과 서로의 리익에 대한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로씨야와 서방의 군사적·정치적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나라들은 리론적 차원에서 공인한 '군사적 실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로씨야를 전략적 실패로 몰아넣는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라브로프는 "서방은 지금 '상상 속의 로씨야의 위협'을 빌미로 군비경쟁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무기 제공을 늘리는 것은 "진지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메시지라며 로씨야는 자국의 리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방송

중-로 수교 75주년에 즈음해

새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조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국가주석의 초청에 의해 로씨야령방 뿌찐 대통령이 16일과 17일 중화인민공화국을 국빈 방문했다. 량국 정상은 북경에서 공식 회담을 가지고 2024-2025년 중-로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로 수교 75주년 특별음악회에 참석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리강 총리가 로씨야 뿌찐 대통령을 회견했다.

중-로 양국은 수교 75주년에 즈음해 새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조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어떠한 형태의 '대만독립'도 반대하며 중국의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고 국가통일을 실현하는 조치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재천명했다. 중국은 로씨야가 자국의 안보와 안정, 발전과 번영,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하며 외부 세력의 내정간섭을 반대한다.

2. 량자는 정상외교의 인솔하에 중-로 새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조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3. 량자는 법 집행 및 안전 분야의 협력을 증시하고 유엔,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등의 틀 안에서 테러주의, 분열주의, 극단주의, 다국조직범죄의 타격을 강화할 것이다.

4. 량자는 상호협력기구 기본틀내에서 협력하는 것이 전면적 전략적 협조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인정했다. 량자는 상해협력기구를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다자기구로 만들기 위해 계속 협력하고 노력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새로운 다국과 국제 패권을 구축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5. 량자는 현재 지역과 세계적인 충돌이 계속되고 국제 안보 환경이 불안정하며 핵무기 보유국을 포함한 국가간의 대결이 심화되어 전략적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주목했다. 량자는 국제 안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6. 량자는 인공지능 문제를 고도로 중시하고 인공지능의 발전, 안전 및 관리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7. 량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기후변화 협약과 빠리협정의 목표, 원칙, 제도적 기

본을 특히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량자는 발전도상국에 대한 발달국의 재정 지원이 지구 평균기온 증가를 늦추고 글로벌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적응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량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무역장벽 설치와 기후 회계를 국제 평화안보 위협과 연결시키는 데 반대한다.

8. 로씨야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유엔현장의 완전한 존수를 바탕으로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9. 로씨야는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위기를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

10. 량자는 모든 국민이 운명을 함께하며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안전을 희생하는 대가로 자신의 안전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인정한다. 량자는 국제 및 지역 안보의 현실적인 도전에 우려를 표명하고 현재의 지정학적 맥락에서 안보 평등 및 불가분의 원칙을 기반으로 유라시아 공간에서 지속가능한 안보시스템 구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1. 량자는 대결성 정책과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중단하고 현유 안보 기본틀을 파괴하지 말며 국가간 '작은 울타리'를 만들지 말고 지역 긴장 정세를 야기시키지 말며 진영대결을 고취하지 말 것을 해당 국가와 기구에 촉구한다.

/ 국제방송

흑룡강성 첫 중국-유럽 화물열차 JSQ형 상용차 전용열차 발차



흑룡강성의 첫 중국-유럽 화물열차 JSQ형(자동차 운반용 화물열차) 상용차 전용열차가 4월 9일 할빈컨테이너중심역에서 발차 대기중이다. (드론 사진) / 신화넷

중-로의 정확한 왕래가 불안정한 세계에 주는 계시

오늘의 세계를 보면 중-로 관계는 그 특수성이 있다. 중-로 양국은 '동맹을 맺지 않고 대결하지 않으며 제 3자를 겨냥하지 않는 것'을 견지해왔고 령전시기의 군사정치동맹을 초월해 국제사회를 위해 신형의 국제관계 모범을 수립했으며 변화복잡한 세계에 보귀한 안정성을 가져왔다.

2013년 이래 중-로 정상은 40여차례 회동을 가졌다. 량국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하에 량자 관계는 력사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그렇다면 중-로 협력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반

드시 시장 평화공존 5항 원칙을 발양하고 상호 존중하며 평등하고 상호 신뢰하고 서로의 관심사를 돌보며 진정한 중-로 양자의 발전 진흥을 위해 서로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습근평 주석이 총화한 중-로 양국의 왕래의 도리이다.

력사적 지혜가 응결된 이러한 경험은 중-로 관계가 계속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가리켜주었고 동요하는 세계에 깊은 계시를 가져다 주었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대국간에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것은 시중 난제였다. 현재 일부 서방국가에서

'대국경쟁'을 부추기면서 세계적 범위에서 분열과 대결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중-로 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은 대국은 완전히 정확한 왕래의 도리를 찾을 수 있으며 강유력한 량자 관계로 세계에 발전과 협력, 안전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표명했다.

현재 세계는 불안정하며 지역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리사국으로서 중국과 로씨야는 모두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확고하게 수호하

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행할 것을 주장한다.

분석인사는 국제무대에서의 중-로의 밀접한 조물과 협조는 일부 서방 대국의 패권 행위를 제약하는 데 리롭고 세계가 진영 대결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좋은 이웃, 좋은 벗, 좋은 동반자인 중-로 양국은 계속해 미래를 향해 손 잡고 나아가며 각자의 발전과 진흥에 노력할 것이다. 한편 세계의 번영과 안정도 이로 인해 보다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것이다.

/ 국제방송